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4년 4월 제289호 http://cnmhs.net

주식회사 대미농수산
대표 정 관 성 (17회)
010-5401-5090
대전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47 (용전동)
Tel (042) 638-4988 Fax 638-4983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김학만 편집인 : 임동현 인쇄인 : 박수용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항상 화합하고 단합하는 동문회 전통 이어나가길"

23대 총동문회집행부 총동문회고문간담회 4월 17일 개최

제23대 총동문회 집행부는 4월 17일 총동문회 고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박종서 19회동문회장이 운영하는 종서산약초식당에서 열려 백운길(1회), 송주영(1회), 심상정(1회), 오응수(1회), 이우정(3회), 서경원(15회), 박대용(16회), 정관성(17회) 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학만 23대 총동문회장과 최이석 수석부회장, 박수용 사무총장은 동문회의 역사인 선배들을 모시고 앞으로 총동문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학만 총동문회장은 "고문님들의 말씀을 많이 경청하고 동문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제23대 총동문회는 '재미있는 동문회' '테마가 있는 동문회'라는 비전과 함께 동문 간에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상하는 가치를 지니고 비전과 가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동문선후배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에 대해 고문들은 "항상 화합하고 단합하는 동문회로 전통을 이어나가는 동문회 운영을 주문한다"며 "선배들은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들은 선배를 존경하는 풍토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새롭게 출범한 23대 집행부는 전국에 계시는 모든 동문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 송예경 총동문회총무 –

23대 총동문회 집행부는 4월 17일 총동문회 고문단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전임 집행부 노력으로 건전 재정 감사"

제23대 총동문회 인수인계식

좌로부터 김학만 회장, 박수용 사무총장, 민운기 전 사무총장.

총동문회 제23대 집행부는 4월 2일 저녁 7시에 유성 삼복가든에서 전임 집행부와 인수.인계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인수인계식에서는 22대 민운기 사무총장과 23대 김학만 총동문회장, 박수용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동문회 제반사항에 관한 인수인계서에 서명하고 앞으로도 동문회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학만 총동문회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지난해 총동문체육대회에서 1억원 이상의 성금을 모으는 등 너무 수고하셨다"며 "23대 집행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제97차 총동문회 이사회 공고

올해는 모교 개교 61주년을 맞는 갑진년입니다. 3만4천784명 동문의 발전을 기약하는 뜻 깊은 해에 제23대 총동문회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총동문회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문 이사님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5월 23일(목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추후 공지
* 안건 : 1호의안 – 제23대 총동문회 임원 임명의 건
  2호의안 – 제33회 총동문체육대회 개최의 건
  3호의안 – 고문위원(정관성 전임회장)추대의 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김 학 만

“수도권 충기인 한마음 되어 멋진 체육대회 열립니다”

수도권 연합체육대회 5월 11일 토요일 용산철도고에서 개최

용산철도고 교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했다.

육정관 서울동문회장과 백해룡 용산철도고 교장.

수도권 충기인들이 한마음 되어 수도권 연합체육대회를 5월 11일 토요일 용산철도고에서 개최한다.

이번 2024 수도권 연합체육대회는 서울동문회(회장 육정관)가 주관하여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철도고등학교 용맥관 2층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다.

용산철도고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에 위치하여 신용산역 2번 출구에서 573m 거리에 있다. 주차는 용산철도고 운동장에서 할 수 있다.

수도권 연합체육대회를 용산철도고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은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재직중인 백해룡(17회) 교장의 덕분이다. 작년에는 인천대공원 인근에서 인천동문회 주관으로 안산, 안양, 서울, 경기북부 동문들이 참가하여 우정의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서울동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이 좋은 곳으로 선정하기 위해 육정관 회장과 임동현 편집위원장 등이 노력했다.

육정관 서울동문회장은 “동문회가 발족되지 않은 성남, 부천 등지의 동문들도 함께하였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수원에 사시는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기인 위상에 걸맞게 회장직 잘 수행하겠다”

전기감리협의회 제10대 회장 송의석 동문(전기과 3회. 대송엔지니어링 대표) 당선

송의석 동문(전기과 3회)이 3월 2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전기감리협의회 ‘2024년도(제28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전기감리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회장과 감사 등 임기가 만료된 임원 선출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 감리협의회 새 수장으로 송의석 대송엔지니어링 대표를 선출했다.

송의석 신임 회장은 당초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총회 하루 전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며 단독 후보로 입후보했다.

이어 감리협의회는 ▲2023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등 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조후동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전기감리업계는 분리발주 시행 등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제10대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의석 신임 회장은 당선인사에서 “감리협의회와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에는 김동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강민구 서울북시회장, 고전주 경기북도회장, 박정철 부산시회장, 최문한 광주전남도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다음은 송의석 전기감리협의회 제10대 회장과 일문일답.

▲감리협의회 회장 당선을 축하한다. 취임 일성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 이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특급감리원 승급에 관한 부분에 회원들의 관심이 많다. 저 역시도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 중이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창구를 통해 필요성과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설득하는 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근 감리업계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다. 신임 회장으로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 감리원 체력 검정이나 인터뷰, 한전의 배전감리 벌점 이슈 등 현안들이 많다. 다들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이라 단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회원들의 목소리가

발주처 등에 제대로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막판까지 후보 단일화 과정이 급박하게 진행됐다. 상대 후보 및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상대 후보님들의 큰 결단에 감사드린다. 감리업계 화합을 위해 큰일을 해주셨다. 회원 여러분들과는 앞으로 임기 동안 자주 만나고, 소통하며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 집행부 임원 구성에 신경을 쓸 예정이다.”

<이상 언론 보도 참조>

한편 송의석 동문은 “충남기계공고 출신의 위상에 걸맞게 임기동안 회장직을 잘 수행하겠다”며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했다.

송의석 동문이 회장 당선 후 당선증을 교부받고 있다.

“우리는 형제가 되고 어느새 가족이 되었다”

염동균 동문(5회), 서울과 경기북부동문회 임원들 식당으로 초청

식사하기 전에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웃고 있다.

식당 앞에서 정겹게 담소를 나누며 다음을 기약했다.

세계챔피언 선배와 지역 동문들이 저녁 먹으며 동문의 짠한 정을 나누었다. 4월 17일 오후 6시 부천 중동의 먹자골목이 한바탕 소란하다. 염동균(5회) 선배의 초청으로 사모님과 운영하는 유황돼지식당에 서울과 경기북부 임원들이 총 출동하여 WBC 전)세계 챔피언 염동균(5회) 선배님의 손을 잡아보며 인생 최고의 희락을 맛보았다.

사실 이 자리는 염동균 선배의 가장 절친인 최회재(현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선배와의 조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서울동문회장 육정관(15회), 총무 박종선(22회), 감사 송석진(21회), 경기북부동문회장 최기춘(15회), 전 회장 강희창(12회), 고문 김중수(2회), 한흥석(17회) 동문들이 흔쾌히 자리를 함께해 주셨다.

이산가족도 아니고 54년 만에 만나는 염동균, 최회재 동기분의 오늘 만남은 웃음과 울음이 교차하였고 “아! 이래서 세상 살맛나는구나”하면서 술병은 쌓여만 갔다. 다소곳이 미소 띤 채 54년 만에 마주 잡은 두 손에서 어느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향기가 풍겨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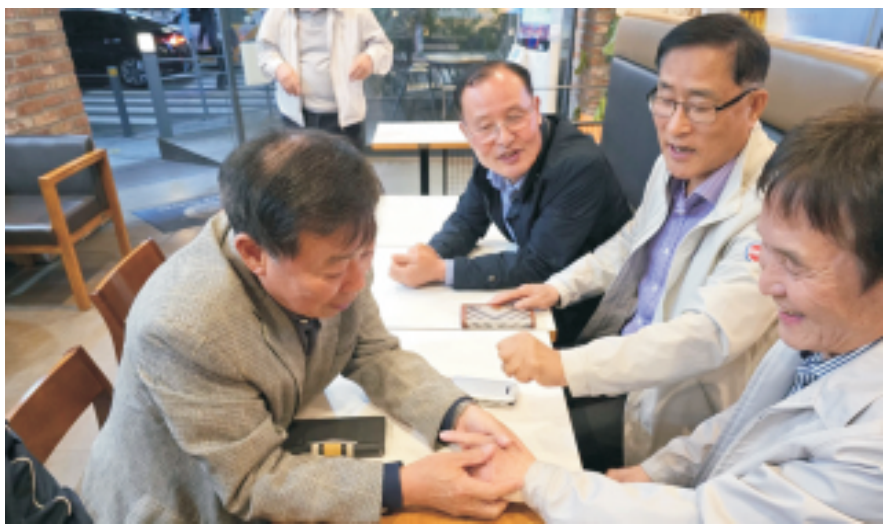
아무리 매혹적인 꽃들의 향기보다도 인향만리였다. 바둥바둥 세상살이, 이팔 청춘은 어디 가고, 흔히들 말한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라고 75세 백발에 만난 두 친구는 이내 고딩 시절로 돌아가 다시 그 찬란했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무심코 만나는 사람도 불교에서는 수만억겁 인연의 산물이라고 한다.

염동균 선배의 고향은 충북 옥천이었다. 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주먹 한번 안 쥐었다는 절친 중의 절친 최회재 동기분의 모친께서도 고향이 옥천이었다. 오늘 함께 한 강희창, 육정관 동문의 고향 또한 옥천이었다. 오늘 만남에 더 이상의 의미는 필요 없었다. 우리는 형제가 되고 어느새 가족이 되었다. 가끔은 한번쯤 고교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친구의 소식이 가장 듣고 싶은지요?

– 임동현 편집위원장 –

동문들이 염동균 동문의 인생스토리를 경청하고 있다.



동문 한 사람이 세계챔피언의 주먹을 만져보고 있다.

부천동문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살고 계시는 많은 동문님들과 함께 부천동문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염동균(5회,WBC 세계챔피언) 선배님이 살고 계시는 부천은 스타 동문회가 될 것입니다.
동문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장 멋진 날 창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 추진위원장 한흥석(17회) 010-8744-7362
◈ 추진위총무 강문식(28회) 010-6274-5928
◈ 장소 : 염동균 선배님이 운영하는 부천중동맛집

“아쉽게도 충기인 첫 국회 입성 현수막 걸지 못했다”

이준배 동문 동문들 성원 힘입어 온 몸으로 뛰었지만 낙선

이준배 동문은 정치 초년생답게 정말 열심히 뛰었다.

낙선 후 부인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있다.

선거사무실에 찾아온 염동균 선배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선거가 끝난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동문들이 선거사무실을 찾아 승리를 기원하며 격려했다.

충남기계공고 개교 60년이 넘어서 충기인 최초로 국회의원 첫 배출이라는 현수막을 준비해 놓았었다. 그런데 동문들이 그렇게 염원했건만 바라는 대로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준배(23회) 동문은 최선을 다 했다. 선거는 바람이었다. 순풍은 기대 하지도 않았다. 몰아치는 광풍에 끝내 그 꿈은 좌절되었다.

선거 백일 전부터 이렇게 지지율이 들쑥날쑥하고 정책이나 토론이 없는 폭주기관차 선거는 처음 본다. 오로지 실력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온 이준배 동문이 제시하는 꿈과 세종의 비전은 아예 먹히지 않았다.

정치논리에서 시대논리로 가는 세종이다. 세종은 이제 대한민국 중심 수도다. 국제 도시 위상 갖춰야...“남행북경”이 답이다. 세종에서 만큼은 진영 논리를 끝내야 하는데... 왜 이준배 인지? 왜 우리가 이준배에 미쳐야 하는지? 이준배 동문이 승리하면 더 위대해지는 이유를 나름 이렇게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는 정권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파도를 뛰어넘고 하늘이 도와 당선된다면어떨까? 바람을, 태풍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따논 당상지역 전라, 경상, 강남 당선자보다 오로지 실력으로 승리하면 당 조직 내 탁월한 입지 구축은 물론 리더로 급 부상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지역구에서 큰 인물이 그리 없었다.

둘째로 고졸, 공고생의 신화다. 산업 구조의 재편성, 젊은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로 한국액셀러레이터 초대, 2대 회장 역임한 이준재 동문은 중소 강소기업 육성, 대폭 증가. 독일 대만 스위스 일본은 대기업 중심이 아님,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세계경제를 주름잡음, 특성화고 지원 봇물, 실업고 미달 사태 방지. 고졸 우대, 직업 윤리, 인력구조 탄력성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셋째로 지금껏 이런 동문, 최종주자는 없었다. 개교 60주년 만에 국회의원 첫 배출로 모교 위상강화, 우수 자원 대거 입학. 동문회 크게 활성화, 자부심 상승. 수많은 정치동문 탄생길을 터놓음 등의 꿈을 꾸었다.

하지만 현실은 낙선의 패배로 돌아왔다. 냉엄한 정치판에서 이준배 동문의 차기 행보는 어떻게 될까. 곧고 바른 성격으로. 새로운 정치인의 철학을 제시하고 정확, 정직, 정의 三정을 실행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이준배 동문이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길 기대해본다.

이준배 동문은 총동문회 밴드에 진솔한 글을 올렸다. “안녕하십니까, 선거운동기간 동문 선후배님 그리고 동창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동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유세를 다니며 많은 동문님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이 소중한 의견을 모아 더욱 발전하는 모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으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3회 이준배 드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충기인의 첫 국회의원 탄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동문이라는 사실만으로 적극 지원해주어 고맙습니다”

서울동문회 정기모임 수도권 연합체육대회 등 협의

서울동문들이 모임을 마치고 단체로 기념촬영했다.

동문들은 이준배 동문의 당선을 기원하며 V자를 그리고 있다.

서울동문회 3월 월례모임이 3월 29일 오후 종묘공원 앞쪽 미당순두부집(김중수 2회 운영)에서 열렸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종로에서 선배님이 운영하는 순두부집은 오래된 가옥으로 전통이 서려 있었다.

우리네 옛 맛 그대로 맛나고 향이 풍부한 두부는 술안주에도 최고였다. 이날 서울동문회에 처음 참석한 염동균(5회) 선배님의 영광된 손을 잡기 위해 동문들은 줄을 서야 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WBC 세계 챔피언이라는 위엄은 고스란히 후배 동문들에게 승리의 에너지로 이어지고 우리 동문 모두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다.

염동균 선배와의 소중한 충기 인연을 간직하고 싶었기에 개인적으로 모두 기념사진을 찍었다.

30명이 넘는 동문들이 서울 중심에 모여 한 일은 세종을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준배(23회)동문을 돕기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하였다.

세종을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절대 절명의 위기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이라는 당위성에 호전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현재 80여 명의 동문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지인찾기 지인연결하기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래도 진영논리를 떠나 동문이라는 사실만으로 적극 지원해준 동문들이 고맙기만 하다.

육정관 서울동문회장은 “바쁘신데 참석해주신 염동균선배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는 5월 11일 수도권연합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만큼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자녀 혼사소식 등 동문들에게 알려

경기북부동문회 4월 월례모임

경기북부동문회 4월 월례모임이 4월 00일 00식당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운정에서 살고 계시는 김중수(2회) 선배님이 처음 나오셨다. 십년 이상을 젊게 사시는 비결을 여쭈어 보았는데 약국을 오랫동안 경영하셨다고 한다.

이날 최기춘 회장을 비롯하여 강희창 최성구 김승환 최현국 김민철 임동현 동문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이날 2만원씩의 월례회비 외에 최현국 회장님이 20만원을 협찬해 주셨다.

모임에서는 5월 11일 수도권연합체육대회(용산), 5월 12일 한흥석 동문 자녀 혼사(반포), 5월 18일 최기춘 동문 자녀 혼사(용산) 소식을 동문들에게 알렸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비내리는 가운데 4개조 16명 참석

충기19골프회 제9회 라운딩 실시

충기19골프회(회장 성기필, 총무 노기종)는 4월 20일 오후 12시 에딘버러cc에서 제9회 라운딩을 실시하였다. 이날 약간의 비가내리는 상황이었지만 4개조 16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라운딩을 하였고 대전 중구 안영동 장어구이식당에서 맛있게 만찬을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 노기종 충기19골프회총무 –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열정이 있어야 조직이 돌아가고 발전 기대할 수 있다”

김학만 총동문회장 등 동문들 모교 박인규교장 예방

김학만 제23대 총동문회장은 취임 후 모교 방문 첫 행보를 걸었다.

김학만(18회) 총동문회장과 최이석(19회) 수석부회장, 박수용(18회) 사무총장, 최동준(21회), 이용주(24회), 권오진(31회) 동문은 교장실에서 모교 박인규 교장, 최영미 교감, 강석종 교감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박인규 교장은 모교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방위산업체 관련업체와 모교가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송대 교수인 김학만(18회) 총동문회장님과 박수용(18회) 사무총장님을 포함 동문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김학만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는 충남기계공업 고등학교 발전에 항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문회가 모교 교장을 예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동문 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던 열정이 있어야 조직이 잘 돌아가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충남기계공고와 총동문회의 윈윈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현재 모교 기숙사동 1층에 있는 총동문회 사무실이 아직도 공사를 하는 관계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로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총동문회사무실 정비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역사홍보관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전해왔다.

총동문회 사무실은 지난 겨울방학을 이용해 일부 보강공사를 하느라고 사무실을 임시 폐쇄했으나 1, 2월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 아직 동문회사무실이 정상적 운영이 안되어 동문들이 안타까워하며, 동문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총동문회 사무실 공사가 마무리 되길 기대하고 있다.

– 권오진 편집위원 –

교장실에서 동문들은 모교의 발전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쳤다.

‘희망나눔 사랑의 밥차’ 감동의 드라마

정관성 전총동문회장 건어물 후원

정관성 전 총동문회장이 사랑의 밥차에 건어물을 전달했다.

정관성 전 22대총동문회 회장은 4월16일 김상용 동문(7회)이 고문으로 운영하는 사랑의 밥차 사무실을찾아 자신이 운영하는 (주)대미농수산에서 취급하는 광천김 3박스, 마른멸치 5박스, 육수용 왕멸치 2봉, 마른미역 3봉, 황태포 2봉지를 후원하였다. 요즘 경제가 힘든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후원의 손길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관성 회장의 따뜻한 마음이 훈훈한 미담으로 충남기계공고동문은 물론 지역사회에 잔잔한 파문이 일고있다.

특히 정관성 전 회장은 이런 아름다운 손길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후원 하였으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임화섭(14회) 동문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 3월 22일 정관성 동문이 총동문회 재정의 안정화를 이룬 가운데 22대 회장직을 23대 김학만 회장에게 넘겨주는 정기총회에 사랑의밥차 단체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주고 김상용 고문이 참석하여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해 주었다.

– 정찬희 편집위원(22회) –

향기나는 글

열정(passion)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열정에 관한 명언

1. 열정은 언제나 당신을 진정한 자신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 라포테르)
2. 인간은 어떤 것이든 영혼을 불태우면 불가능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장 드 라 퐁텐)
3.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타는 인간의 영혼이다. (페르디낭 포슈)
4.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뤄진 것은 없다. (랄프 왈도 에머슨)
5. 결코 끌 수 없는 열정으로 삶을 살아라. (셰익스 피어)
6. 열정만 있으면 돼.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재능을 창조할 수 있어. (안니)
7.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하고 열정적으로 임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넬슨 만델라)
8. 이 세상 최고의 파산자는 열정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상실하고도 열정만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 (H.W. 아널드)
9.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려는 뜨거운 열망. (브래드 버든)
10. 당신 아들딸에게 단 하나의 재능만을 줄 수 있다면 열정을 주어라. (브루스 바튼)
11. 열망은 동기의 핵심이다. 그러나 성공을 거머쥐게 해주는 것은 목표를 가차 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결단력과 헌신, 탁월함에 대한 헌신이다. (마리오 안드레티)
12.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생각과 열정의 교류에서 이루어진다. (토마스 J. 왓슨)
13. 정열은 강물과 바다를 닮았다. 얕으면 중얼거리고 깊으면 잠잠하다. (월터 로리)
14. 성공하려면 그것이 현실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믿어야 한다. (아니타 로딕)
15. 열정은 사람들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실패를 뛰어넘게 할 것이다. (조지프 캠벨)
16. 열정이 있다면 실력은 언젠가 생겨난다. (가수, 프로듀서 박진영)

수입 현황

기간 : 2024년 3월 27일 ~ 2024년 4월 23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모교사랑" 자동이체

방	1	박만영	10,000	기	14	백채준	10,000	기	20	진관섭	10,000	전	25	김종필	10,000
방	1	백운길	10,000	기	14	이종업	10,000	기	20	차정운	10,000	기	25	홍준용	10,000
상	1	오응수	10,000	기	14	임화섭	10,000	기	21	김기영	10,000	기	26	김윤태	10,000
전	2	윤성덕	10,000	기	14	전병민	10,000	기	21	김용근	10,000	기	26	류한의	20,000
광	3	서한수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21	박원종	10,000	기	26	박정원	10,000
전	3	이우정	20,000	기	16	양희대	10,000	배관	21	박찬권	10,000	배관	27	김도진	10,000
방	4	송석범	10,000	기	16	윤석길	20,000	기	21	오흥석	10,000	기	27	송형태	10,000
자	7	조봉호	1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21	유호문	10,000	기	27	이문휘	10,000
광	8	김재겸	10,000	기	16	조성서	10,000	전	21	임동현	10,000	기	28	강문식	10,000
기	8	신도성	10,000	기	17	권오섭	10,000	기	21	장명국	10,000	기	30	이정근	10,000
화	8	이원승	10,000	기	17	김용택	10,000	기	21	진춘식	10,000	기	31	강두형	10,000
전	8	임헌표	10,000	기	17	김종수	10,000	기	21	한석원	10,000	기	31	권오진	10,000
자	8	정기원	20,000	기	17	김진덕	10,000	기	22	김양훈	10,000	기	31	남지현	10,000
방	9	박춘자	20,000	기	17	류승정	10,000	기	22	김준수	10,000	기	31	오선균	10,000
전	9	임세환고문	10,000	기	17	민운기	10,000	전	22	박종선	10,000	기	32	장진학	10,000
방	9	진한종	10,000	기	17	서승영	10,000	금	22	이구형	10,000	배관	33	김명수	10,000
방	10	김영갑	10,000	기	17	송선호	10,000	기	22	이보윤	10,000	기	33	오규성	10,000
자	10	김창길	10,000	기	17	양희곤	10,000	기	22	이영우	10,000	기	33	이명호	10,000
전	10	오창균	10,000	전	17	오명진	10,000	기	22	정기채	10,000	기	33	이재상	20,000
자	10	이경세	10,000	기	17	윤재경	10,000	기	22	정연근	10,000	기	33	전우창	10,000
전	11	김용진	10,000	기	17	이상봉	10,000	기	22	조영백	10,000	전	34	공대성	10,000
전	11	오연진	10,000	기	17	정관성	20,000	전	23	김은철	10,000	전	34	김용정	10,000
광	11	조동호	10,000	금	17	정찬문	10,000	기	23	윤인섭	10,000	기	35	김정규	10,000
전	12	김기용	10,000	기	17	정희중	10,000	기	23	이봉준	10,000	기	37	박재현	20,000
기	12	라기원	10,000	전	18	마수용	10,000	기	23	이주한	10,000	기	39	김동연	10,000
기	12	서영환	10,000	기	18	장영우	100,000	기	23	임정호	10,000	금	52	이승원	10,000
기	12	전종현	100,000	기	18	최민순	100,000	기	23	한병수	10,000	기	53	이영욱	10,000
기	12	천명재	10,000	기	19	임운택	10,000	전	24	김용석	20,000				
기	12	황규표	10,000	전	19	임형일	10,000	기	24	김형찬	10,000				
기	13	강현용	10,000	기	20	김동로	10,000	기	24	박종호	10,000				
기	13	마평춘	5,000	기	20	박경하	100,000	기	24	안영호	10,000				
화	13	박대균	10,000	기	20	여명찬	10,000	기	24	이용주	10,000				
기	14	김병갑	10,000	기	20	이석래	10,000	기	25	강신철	10,000				

연회비 및 발전기금

광	4	지복만	20,000
자	4	황완수	20,000
전	7	김기홍	20,000
전	8	신의중	20,000
자	9	김선영	20,000
기	9	전중식	20,000
기	10	강태인	20,000
전	11	한재석	20,000
기	12	한창원	100,000
기	13	고영순	100,000
기	13	이강은	20,000
기	13	정진국	20,000
기	14	김근식	50,000
기	14	김용일	100,000
화	14	정헌규	50,000
화	14	차영대	20,000
기	19	이재원	20,000
전	22	박부규	50,000
단체	재경교육자회		1,36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나이들면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

14동문회 4월 월례회

14회 동문회(회장 백채준)는 짝수 달 격월로 모임을 가진다.

지난 4월 19일 오후 7시 유성구청 근처 음식점에서 16명의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채준 회장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참석을 하지 못 했으나 엄필환 수석부회장의 진행으로 특별회비 및 일반회비에 대한 재무보고에 이어, 년간 계획에 의한 단합야유회를 6월 21일 대전시 동구 신촌동 구름다리 펜션에서 가지기로 하며 바둑동호회를 신설하니 희망자에 한 해 신청을 받기로 하고 화목하게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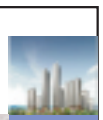
– 허인범 14회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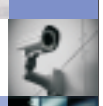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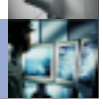
엄필환 수석부회장이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KIA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편해시협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7@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헌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세종점 ☎044-867-2202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근로자파견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매연저감장치 DPF 건식클리닝
월드DPF클리닝 수리전문
세계특허 NFHTP 건식버닝 방식
대표 이남희 (9회) 010-5438-637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56-1
대표전화 1544-0572
FAX. (042) 934-2011
※ 토. 일요일에 예약가능 ※

(주)필엔텍 FIL & TECH
대표이사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20 (가온비즈타워 220~222호)
TEL. (042) 626-8548
팩 스. (042) 626-8549

(주) 서한 ENC
MIURA 충청대리점
- 기계설비1종 설계 및 시공
- 열사용기자재 취급 및 시공
- 기계소방용품 및 안전용품 취급
- 안전관리 설계 및 시공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 산업용 탱크 및 식품기계

차장 김 동 연 (39회)
010.9813.0139
042.935.0280
042.935.0281
starkjpn@naver.com
www.seohanenc.co.kr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37-9, B동 2층 202호

세무법인 이 정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북대전 · 대전세무서, 조세심판원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JEVISCO 대연상사
KCC 제일테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번길(대화동)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9, 140호
Tel. 042·670·7877, 7233 / Fax. 042·670·7876
E-mail. jmi4415@hanmail.net

KOHANDS (주)코핸즈 대리점
GSA AIR DRYER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에어스타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Total Air Solution Air Compressor HKMComp
대 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번길(대화동)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Tel. 042·670·8962, 042·623·8962 / Fax. 042·670·8963
E-mail: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1번길 13 (대화동)

싱크마스터
N : 싱크마스터
대표 이 승 원 (52회) 010-5823-2171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96번길 34
https://smartstore.naver.com/sinkmaster
주방기기
주방싱크볼
사각싱크볼
원앙, 아스타 네모
싱크볼, 교체, 설치

KW 경우금속주식회사
【구리 동 파이프 판매업】
대표이사 강 희 창 (12회) 010-3568-632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129번길 10
TEL : (031) 946-9813~4
FAX : (031) 946-9815
E-mail : kyungwoo9815@naver.com

meritz 메리츠화재

FP/ 대전본부
오 규 성 (33회)
Mobile. 010-9551-0418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T.042-337-4004 F.042-337-4009
34903.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빌딩 2층 www.meritzfire.com

HYUNDAI GENESIS
카마스터
이 용 주 (24회)
010-3404-6989
현대자동차
대전선화대리점
대전 중구 대종 545(선화동)
신차상담/할부/리스/렌트
TEL : 042-254-9000
FAX : 042-254-4000

큰우리요양병원
중풍, 치매, 뇌졸중 및 노인성 질환 호스피스 전문

병원장 오 상 근 (6회) 010-2972-5354
대전시 유성구 학하서로 99 (덕명동 171-6)
Tel. 042-522-1001
Fax. 042-526-1100
사회복지법인 밀알 http://milalbj.or.kr
대표이사 오 상 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87 화성빌딩 4층
T. 042-627-0135 F. 042-716-7119
※후원계좌 : 하나 646-508185-00105 사회복지법인 밀알